양날의 검인 성령충만

(행4:23~37)

29.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2.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양날의 검인 성령충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양날의 검인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刀)가 있고 검(劍)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그 한자의 뜻을 새기면 칼 도(刀)자, 칼 검(劍)자입니다.
그런데 이 도와 검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刀)는 뭐냐 하면, 칼날이 한쪽에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연상하려면 부엌에서 사용하는 식칼을 생각하면 됩니다.
유명한 일본도(日本刀)가 한쪽에만 날이 있는 대표적인 도(刀)지요.

그리고 검(劍)은 주로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영화를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칼로서 양쪽에 날이 서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지요.
이 '양날의 검'이라는 단어가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날의 검을 사용할 때는 양쪽에 칼날이 서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른쪽으로 휘둘러서 안 맞았을 때 다시 왼쪽으로 끌어당기면, 왼쪽에도 칼날이 있고 오른쪽에도 칼날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공격력이 두 배가 될 수 있고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잘못 사용하면 양쪽에 칼날이 서있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줄 수가 있어요, 내 칼에 내가 베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 연상하실 수 있지요?
칼싸움을 하다가 칼과 칼이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서로 힘으로 밀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밀릴 경우에 한쪽에만 날이 있는 도(刀)면, 날이 없는 쪽으로 내 얼굴이 맞닿았다고 칠 때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날의 검은 내가 밀릴 경우에 내 살에 닿게 되면 내 얼굴이 베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
예를 들면, 로또가 당첨되었다, 양날의 검입니다.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사고 싶었지만 사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사다보니까 내 욕구가 넘쳐흐르게 되면서 사람이 망가져버리고 타락하게 돼버립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들어서면 엄청난 권력이 주어집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잘 다스리면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데, 이 권력이 남용돼버리면 쇠고랑을 차게 됩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2장에서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성령 충만 기억하시지요?
오늘도 성령강림이 일어나는데, 상황은 좀 달라요.
어제 우리가 산헤드린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산헤드린공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계속 전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드러낸 것을 함께 봤어요.

그리고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초대교회 동료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가지고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하게 될 때 모든 교인들이 다 직감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핍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노력은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저들이 우리를 계속 핍박할 텐데, 헛된 것이 되게 해주세요!'
헛된 것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핍박이 없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핍박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복음사건에 대한 말씀의 전함이 전혀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2장의 성령 충만과 4장의 성령 충만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묘사를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2장에서 성령 충만은 특징적인 단어가 뭐냐 하면,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혀 모양의 불덩어리들이 다 분산돼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래요.
즉,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 충만의 묘사에는 땅이 진동하게 됩니다.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지진의 증상을 말하는 것이죠.
뭐 그 자리가 갈라지면서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겠지만 지진현상처럼 땅이 진동한 것입니다.
다르지요?
여기서는 땅이 진동하는데, 2장에서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려옵니다.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양날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정말 양날이 선 검처럼 우리가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은 양날의 검을 잘 사용할 때에 공격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것과 같이 얻는 게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제대로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베임을 받게 됩니다.
양날의 검을 잘못 사용해서 베일 때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것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찰싹 가붙어서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깊이 베임을 받게 됩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얻는 것과 베어져서 끊겨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2장의 성령 충만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 찼다고 얘기해요.
2장의 성령 충만에서 묘사되는 것은, 하늘을 얻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는데, 그곳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을 얻게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곳이 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된다는 것은 내 가정의 형편보다 먼저 천국이 마음에 와 닿는다는 얘기에요.
우리나라의 형편이 있습니다, 나라의 형편보다 천국의 현실이 먼저 마음에 와 닿는다는 얘깁니다.
내 경제적인 현실, 심지어는 내 몸의 건강상태보다도 더 먼저 하늘나라가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괴로워하기 이전에 하늘나라를 먼저 만나게 되면서 하늘나라에서 내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고 기쁘게 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내 몸의 건강상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일이 사도바울의 고백이에요.
육체에 가시를 안고 있는 사도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앞선 현실이 되면서 하늘을 얻습니다.

반면에 4장의 성령 충만은 땅이 흔들렸다고 그래요.
땅이 흔들렸다는 얘기가 뜻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땅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는 지진대 위에 사는 사람은 늘 걱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땅을 사서 이 땅 위에 건물을 아름답게 세워본들 내년에 지진 한 번 일어나면 땅속에 묻혀버릴 텐데, 돈 없애고 애쓰고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일주일 내내 지진이 일어나고 일 년 365일 흔들거리는 그런 땅 위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회사를 세워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땅이 진동한다는 얘기는 오순절 성령강림 때도 있었던 얘깁니다.
또, 4장의 성령강림 때도 하늘이 내 것이 된다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날의 검을 따로따로 묘사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었던 천국이 내 것으로 획득이 됨과 동시에, 이 땅에서 내 인생 동안에 얻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모든 소원과 계획이 바 베어져 나가게 됩니다.
실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실지 내가 서있는 이 땅이 흔들리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서 땅이 진동하는 게 보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성취하겠다든지, 소원을 갖고 계획하고 이루겠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말게 된다는 얘깁니다.
내 마음에서 이 땅에 관한 애착과 좋아함 자체가 완전히 베어져서 끊겨져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다른 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 한 날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하늘을 향하여 둔감했던 우리의 둔감함을 베어버리고, 하늘을 향해 눈멀었던 우리의 시각을 베어버리면서 하늘에 눈뜨게 하고 하늘을 느끼게 하고, 하늘을 현실로 붙잡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 현실이었고 좋아했고 내 꿈의 기반이었고 내 성취의 기반이었던 이 땅을 베어서 끊어내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2장의 성령 충만 때는 '하늘로부터'라고 묘사돼있고, 4장의 성령 충만 때는 '땅이 진동한다'고 돼있지만, 성령 충만의 결과는 2장에서와 4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오순절 성령강림 때, 성령의 임하는 모습이 하늘로부터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묘사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타난 것, 베드로의 설교 끝에 나타난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게 됩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집과 밭을 팔아서 다 바치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는 물질의 통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4장에서도 똑같아요.
묘사만 다를 뿐이에요.
성령 충만이 일어났을 때 땅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했습니다, 땅이 진동한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똑같이 집과 밭을 팔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것을 통용해서 부족하고 결핍된 사람에게 다 나누어줌으로써 모두가 다 골고루 부족함이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2장에서의 오순절 성령강림 때의 묘사와 같이 하늘을 갖게 되면, 일단 하늘이 내 현실이 되게 되면, 입 바깥으로 꺼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늘을 갖게 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아, 그렇게 좋은 하늘로 이르는 길이었구나!'
부활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승천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승천이 정말 이 땅과 하늘을 잇는 길을 개통하시기 위한 역사였구나! 알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아버지, 보좌에 앉아계신 그분과 그분이 계신 하늘나라를 마음이 현실로 느끼게 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늘을 갖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땅은 흔들리고 있는 실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땅 위에서 내 마음을 두고, 이 땅 위에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얻기 위해 성취하고 쌓아올리고 많이 모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내 것이 아닌 게 돼버리고, 내 것이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집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집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팔아버립니다.
이 땅은 안정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지로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성령 충만이 되면 내 마음에서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은 진동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 땅 위에서 내가 많이 모으고 쌓아올리면서 기뻐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강림 때도 묘사를 안 했을 뿐, 땅이 흔들렸고, 4장의 성령 충만 때도 묘사가 안 됐을 뿐이지 하늘이 소유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양날의 검인 것이에요.
그동안 까마득하게 몰랐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평강과 만족감의 근원이 되는 천국을 갖게 해줌과 동시에, 그동안 내 모든 안정된 삶을 통하여 행복과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베어져나가게 되는 양날의 검으로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다는 얘깁니다.
자, 이렇게 알고서 성령 충만을 원하세요!
원하고 싶으십니까?
아직은 안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재산을 내 이름으로 갖고 있다는 게 그냥 무의미하게 보여 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용기를 내서 구제를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렇게 보여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구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땅이 진동함을 보는 거예요, 이 진동하는 땅 위에서는 내 거라고 주장한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안정된 기반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 충만해서 끌려갈 때, 필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100억이라도 떨어뜨려주실 것을 믿게 되니까, 지금 내 통장에 돈을 갖고 있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의 순간순간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관통하고 지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 그것을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정문제, 나라문제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붙잡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늘이 느껴질 때까지.
하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이 임하게 되면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땅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평강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땅의 형편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짓눌려 있었는데, 십자가 붙잡고 내가 땅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고백을 하며 기도하게 될 때, 갑자기 이 땅의 형편과는 상관도 없는 평강이 임하는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어서 땅에 대해 그 어떤 애착도 미련도 없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얘깁니다.

양날의 검인 성령 충만!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문제가 성령 충만으로 해결이 돼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돈 문제가 있을 때 돈을 벌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돈 문제 자체를 아예 마음에서 베어버리게 합니다.
베어버린다는 것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지금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핍박은 더해질 거예요.
핍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미련은 더 없어지고, 하늘에 대한 경험은 더 풍부해지고 강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순교하는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순교를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양날의 검, 하늘을 얻게 하는 획득의 날이 있고 땅을 베어버리는 상실하게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양날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양날의 검인 성령 충만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과 우리 마음이 찰떡같이 달라붙어서 기도함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양날의 검인 성령 충만이 임하시어 하늘을 첫 번째 현실로 갖게 하시면, 이 땅을 마음에서 베어버려 땅으로부터 자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